

『율리시즈』에 나타난 배설적 풍자의 정치학

진 선 주

I. “내가 나 자신에게 카타르시스-정화의 이 성무를 부여하노라” (CW 149)

조이스의 『율리시즈』(*Ulysses*)에는 분변학(scatology)적 언급이 많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소변을 비롯한 각종 배설 행위를 예사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언사를 거침없이 사용한다. 설화의 전개를 보더라도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의 하루는 배변으로 시작하여 그의 부인 몰리의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하여 조이스는 배설물 집착증을 가진 불결물 기호벽(coprophilia) 환자가 아닌가하는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율리시즈』가 출판된 직후에 나온 『스포츠링 타임즈』(*The Sporting Times*)의 서평(1922)은 “조이스의 작품은 변소 문학을 전공한 도착증 환자가 쓴 것 같다”면서 “호텐투스족과 같은 아편인마저도 역겹게 하기에 충분하다”(Deming 192-194)까지 하였다. 초기의 비평가들의 악평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 대부분이 조이스 문학의 혁명성을 역설적으로 지적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악의적인 혹평은 이 작품의 배설적인 특징을 들춘 것은 분명하지만 독자들의 불쾌감 유발이 목적인 전부인 듯한 그 이유는 조이스의 참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올바른 조이스 읽기를 위하여 그가 『율리시즈』에서 배설적 이미지와 언어를 즐겨 쓰는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그가 배설물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부터 살피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쓴 목적 중의 하나는 “인체의 서사시”를 쓰는 것이었다(Budgen 21). 조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은 몸과 영혼, 이 양자로 구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문학에서는 고고한 영혼의 문제에만 집착할 뿐 몸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믿었다. “천체는 너무나 오랫동안 연구되어왔으나 인간의 몸은 무시되어왔다. 혈액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알아내기 수세기 전에 이미 태양의 일식은 예언할 수 있었다”(Potts 159)는 말로 조이스는 인체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방면의 선구적인 개척자가 되겠음을 암시하였다. 천체만의 연구가 인간사 연구의 전부가 아니듯이 몸이 없는 정신만의 문학은 절름발이 문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이스의 인식이었다. 그리하여 “내 책에서는 몸이 완전한 인격의 집임”(Budgen 21)을 보여주기 위하여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의도 중의 하나로 “인체의 서사시”로 삼았다.

『율리시즈』에는 조이스의 말대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몸이 서술되어 있는 바(“In my book the body lives in and moves through space.” Budgen 21) 이를 준비하는 데는 해부학적 지식은 물론 생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생리학이란 인체의 생리작용 전반을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로 호흡작용, 소화작용, 생식작용, 혈액순환작용 또는 대사작용과 더불어 배설작용이 그 주요 연구 대상이다. 그런데 조이스는 일찍부터 배설작용의 부산물인 배설물(excrement 또는 faeces)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이를 예술 작품화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우선 배설물은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1916)에서 스티븐 조이스가 “배설물이나 아이나 이(louse)는 예술 작품일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P 214)하는 문제로 고심하는 데서 입증된다. 이 의문은 그 자리에서 친구 린치(Lynch)의 웃음을 사고 말지만 스티븐은 그 해답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스티븐 조이스는 얼마 뒤에 배설물 그 자체는 단순한 신체의 노폐물일 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배설물, 아이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생리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들이 생성되는 과정은 자연적인 것으로 예술적인 과정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 이들의 목적에는審미적인 목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술 작품일 수 없다”(CW 146).

미학적 목적이 없는 자연적인 대상은 예술품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조이

스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예술 작품화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일상 생활의 빵을 영원한 예술적 생명력을 가진 그 무엇으로 성변화(聖變化)시켜 독자들에게 지적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작가”(Ellmann 1982, 163)이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그 해결책을 찾아낸 것 같다. 그것은 그의 평소의 예술관, 즉 “예술이란 인간이 탐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것”(P 207)이라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배설물 특유의 속성을 포착하여 거기다 탐미적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학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처리”만 잘 하면 배설물도 얼마든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조이스가 이해하는 배설물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레오폴드 블룸의 의식 내용과 관계가 있다. 블룸은 아침에 변을 보러 뒷간으로 가면서 황폐한 정원을 지나다가 잠시 이런 생각에 잠긴다.

그는 몸을 굽혀 담벼락 옆에 가지런히 자라고있는 영양결핍증에 걸린 듯한 박하를 살펴보았다. 여기다 정자를 하나 만들어야 할텐데... 붉은 꽃 강남콩, 아메리카 담쟁이덩굴. 정원 전체가 거름 부족이군. 땅이 온통 메마른 딱지투성이니 말이야, 유행빛 다갈색으로 뒤덮여 있군... 똥이 들어가지 않으면 땅이란 죄다 저 꼴이 되고 말거든. 옥토라니, 그건 대체 어떤 땅일까? 옆집 마당의 암탉들. 암탉 똥이 썩 좋은 일류 비료지. 하지만 뭐니 해 도 가장 좋은 비료는 쇠똥 거름이거든, 특히 기름 찌꺼기를 먹여 키운 소의 똥이 최고지. 똥의 더경이. 귀부인들 키드 가족장갑 세탁에는 그저 그만이지. 똥(배설물)이 세탁한다. 재도 마찬가지지. 정원을 몽땅 다시 개간해야지. 저기 저 구석에는 완두콩을 심어야지, 상 치도 키우고. 그러면 언제든지 신선한 푸성귀를 먹을 수 있거든... (U 4. 475-483)

블룸의 의식을 분석해 보면 배설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생산적인 효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하나는 풍요를 보장하는 비료적(창조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오물을 제거하는 세척적(카타르시스적) 기능이다. 여기서 세척적 기능이라 함은 “똥의 더경이”는 잣물과 마찬가지로 “귀부인들 키드 가족장갑 세탁에는 그저 그만이지. 똥이 세탁한다”는 말이 이를 입증한다. 조이스는 배설물의 이러한 두 특성에 바탕을 두고 미학적 목적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배설물을 “처리”/“성변화시키기”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배설물의 세정적 특성을 중시, 배설물적 요소를 문학적 풍

자의 수단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는 그의 풍자시 「교리 성성」(The Holy Office)(1904)에서 입증된다. 조이스는 당시 맹렬악을 하던 문예부흥주의자들의 웅
 줄한 자세를 공격하기 위하여 쓴 이 시에서 예술가로서의 그의 임무는 “카타르시
 스-정화”(Katharsis-Purgative)에 있다고 호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산에게 카
 타르시스-정화의 이 성무를 부여하노라” (CW 149).

조이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정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정의에서 사용
 한 말임은 물론이다. 안타까움과 공포와 같은 감정의 “정화”가 비극의 목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배설물의 세정적인 기능에서 도출되었으리라 판단한 조
 이스는 「교리 성성」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이용하여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가들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와 위선을 “정화”하는 것이 그에게 부과된 시대적 책무라고 주
 장하였다.

...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무리들이/ 나로 하여금 이들 도당의 하수구가 되
 게 하는구나. 그들은 허황한 꿈을 꾸며 누워있겠지만/ 나는 그들이 흘리는
 구정물을 실어 나르네 내가 아니면 뉘라서 그들 위해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리하여 그들의 움츠린 똥구멍 의 긴장을 해소하면서/ 카타르시스의 내
 성무를 수행하노라/ 내 시빨진 하수구가 그들을 백양처럼 희게 씻어주노라/
 나를 통해 그들은 똥배를 정화하노라. (CW 151)

조이스가 이 풍자시에서 배설적 언어를 동원하여 “허황한 꿈만 꾸는” “무리
 들”을 “카타르시스-정화” 하는 것은 배설물의 세정적 기능에 입각, 이를 삼미적으
 로 “처리”/ “성변화시키기”만 하면 배설물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구실을 할 수 있
 다는 그의 결론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율리시즈』에 분변학적 언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이스가 배설물을
 예술적인 목적으로 광범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배설물과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예술적인 서술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는 물론 배설물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같이 이 작품에서 서술 전략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특징에 입각한 문제의 전개를 이 글에서 한꺼번에 살펴보기에
 는 지면의 제약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배설물의 창조적(풍요적) 특징과 관련
 된 문제는 고(稿)를 달라하여 별도의 글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세척적
 (카타르시스적) 특징과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척적 기능이 많이 변
 용되어 있다는 것은 풍자의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글

에서는 조이스가 “똥의 더덩이”로 벗기려는 때가 어떤 것들이며 이런 때를 어떻게 벗기는가를 체계있게 살피려 한다. 다시 말해, 그가 『율리시즈』에서 배설적 언어와 이미지를 구사하여 풍자하고자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 대상을 어떤 양상으로 풍자를 가하는가, 그 서술 전략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의 풍자 속에 갇힌 메시지나 무엇인가, 그 정치학을 더듬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아일랜드 넘마 대 황소 영국의 대결” (U 15. 4497)

풍자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확인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율리시즈』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대충 훑어보는 일이다. 조이스의 풍자의 대상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주로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의 배경인 더블린의 1904년은 아일랜드가 대영제국의 식민지일 때였다. 그러기에 이 해를 전후한 아일랜드의 국민적인 관심사는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구체적인 당시의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사는 아일랜드의 자치(Home Rule) 쟁취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영란 합병법(Act of Union: 1800년)에 따라 해산된 아일랜드 의회를 더블린에 다시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아일랜드 의회당 당수 파넬(C. S. Parnell: 1846-1891)의 탁월한 영도로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W. E. Gladstone: 1809-1898)의 동의까지 얻어 거의 달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달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파넬이 갑자기 이혼소송 사건에 휘말려 의회당의 당수직에서 축출되는 바람에 아일랜드 자치 쟁취 운동은 좌초되고 말았다. 『율리시즈』의 1904년은 영도자를 쫓아낸 의회당이 자치 운동의 구심점을 잃고 사분 오열 상태에서 당원들끼리 세력다툼만 일삼고 있을 때였다. 한마디로 파넬이란 선장을 아일랜드 정계의 난파선은 정치의 바다에서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블린 사람들』의 「선거 사무실에서 맞은 파넬의 기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을 통하여 이 무렵의 정치적인 혼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율리시즈』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의식과 활동 속에 정치 문제가 거미줄처럼 뒤얽혀있어 당시의 정치적인 난맥상을 보다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우선 주인공 블룸부터 파넬이 추구하는 자치 운동의 지지자로 나온다. 군중 대회

의 소란 통에 파넬의 모자가 벗겨지자 이를 주워 주어 파넬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받은 작(U 16.1333-36; 1513)이 있는 블룸은 「키르케」장에서 “나는 자치주의 윤리의 개혁을 지지한다”(U 15. 1685)고 말하는가 하면, 「이타카」장에서도 홈룰 운동의 주도자인 파넬과 그 협력자인 글래드스톤의 지지를 공언한다(U 17. 1649-1651).

블룸의 근무처이자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민족지로 자처하는 일간 신문 『프리먼즈 저널과 내셔널 프레스』(*Freeman's Journal and National Press*)지의 제호에도 자치를 상징하는 도안이 들어 있다. 이 도안은 아일랜드 전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이 신문의 사시(社是)로서, “아일랜드를 독립 국가로”라는 모토 바로 위에 아일랜드 은행 뒤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담고 있다. 아일랜드 은행을 넣은 이유는 이 은행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아일랜드 의회가 해산되기 전까지 아일랜드 의회의 의사당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호는 하루 빨리 자치가 성취되어 아일랜드 은행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대변한다. 블룸은 아침에 찬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이 제호를 두고 ‘신 페안(*Sinn Fein: We Ourselves*) 운동의 지도자 그리피스(Arthur Griffith 1871-1922)가 한 말이 머리에 떠올라 혼자 웃기도 한다(U 4. 100-104).

블룸은 철저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영국의 통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직접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이자 젊은 지식인 스티븐은 영국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영국인 헤인즈에게 자신을 “두 상전 즉 대영제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인”(U 1. 638)이라고 자조적으로 공언한다. 대영제국의 하인이라 함은 영국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인이라 함은 파넬의 당수직 박탈에 앞장 선 가톨릭 교회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짓눌린 삶을 뜻한다. 「키르케」장에서 술에 취한 그는 비록 환각 속의 일이긴 하지만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영국 병사들을 성원하기 위하여 사창가에 나타나 왕의 면전에서 “나는 지금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U 15. 4470)라고 호언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려는 병졸들에게는 ‘대영제국(British Empire)’을 “짐승의 제국(brutish empire)”(U 15. 4569-70)이라고 힐난하기도 한다. 그는 또 아일랜드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하여 영국인들을 침입자라는 뜻으로 “너희는 불청객이야. 역사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U 15. 4370-72)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키르케」장은 더블린의 홍등가에 영국인 두 병사와 아일랜드인 스티븐의 출현으로 시작하여 이들 간의 안쟁 끝에 스티븐이 병사들에게 얻어맞아 길바닥에 쓰러지는 것으로 끝난다. 아일랜드의 식민지적 무의식의 성격을 대변하는 이 에피소드(Gibson 182)에서 스티븐의 이와 같은 참패는 『더블린 사람들』의 「맞상대들」에서 회사원 패링턴이 영국인 웨더즈와의 팔씨름에서 보기 좋게 지고 마는 형국(D 96)과 다를 바 없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는 1904년 당시의 국내외적인 사회상이 지형학적 정확성 못지 않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정치색이 짙은 「네스토르」, 「아이올로스」, 「카클롭스」, 「키르케」장이 그렇다. 그 중에서도 「키르케」장이 영국의 철권 통치아래 신음하는 아일랜드의 식민지적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한다.

III. “그는 현상소설을 반으로 쪽 찢어 그것으로 뒤를 흠쳤다”(U 4. 537).

블룸은 측간에 가서 변을 보는 일로 그의 하루를 시작한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수세식 변소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는 이미 보급되어 있었지만)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에서 떨어져 있는 측간으로 가서 변을 보아야 한다. 『초상』에서 찰스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용변을 해야 하는 악취가 잔동하는 바로 그런 곳이다. 블룸은 화장지로 쓰기 위하여 책상 서랍을 뒤져 『탯비츠』(Titbits)라는 철지난 주간지를 꺼내 든다. 이 잡지는 세계 각국의 신문과 잡지에 이미 보도된 기사 중에서 자극적인 토막 기사나 가십만을 골라 주로 신는 싸구려 대중잡지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다(1881년 창간). 매주 목요일 런던에서 발간되는 이 주간지(Gifford 80)는 매호마다 현상 공모를 실시하여 당선된 단편 소설을 한 편씩 실리는 특징이 있다. 블룸이 가져가는 그 호에는 영국인 필립 보포이가 쓴 「매침의 기막힌 솜씨」(Matcham's Masterstroke)라는 당선작이 실려 있다. 블룸은 변을 보는 동안 무엇이나 읽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탯비츠』를 읽으면서 대변을 본다(U 4.506-517).

블룸은 용변을 하면서 읽은 『탯비츠』를 통하여 보포이가 글을 써서 3파운드 10실링의 거액의 상금을 탄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부러워서 자신도 글을 써서 부부 합작으로 발표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용변이 끝나자 “그는 현상 소설

을 반으로 썬 찢어 그것으로 뒤를 흠쳤다. 그리고는... 측간의 덜경거리는 흔들리는 문을 안으로 잡아당겨 컴컴한 변소 안에서 밝은 대기 속으로 나왔다”(U 4. 537-540).

우리는 여기서 블룸이 하필이면 영국인 보포이의 단편소설 부분을 찢어 밑을 닦는 사실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조이스는 왜 블룸으로 하여금 “런던 연극 동호인 클럽의 필립 보포이씨 작 현상 당선 소설 ‘매침의 기막힌 숨 씨’”(U 4. 502-503)를 찢어 똥뒹개로 쓰게 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이스는 여기서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는다. 궁금증만 자극해놓고 입을 굳게 다문다. 조이스는 케너(Hugh Kenner)의 말대로 “지연의 미학”(The Aesthetic of Delay)의 작가 (72-82)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리가 없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읽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노라면 언젠가는 그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터이니까.

블룸이 광고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는 『프리먼즈 저널』사의 응접실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용건이 있어 방문하는 내방객보다는 술친구를 찾아오는 주객들이 항상 더 많다. 이들은 누가 술을 낸다는 소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고 죽치고 앉아 고담준론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블룸이 광고경신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응접실에 모인 술꾼들은 그 날도 시사 문제를 화제로 갑론을박한다. 언제나 화제를 리드하는 사람은 박학다식한 맥휴 교수다. 자기가 가르치고싶은 그리스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라틴어를 가르쳐야하는 자신의 팔자는 영국의 식민 정책 탓이라고 한탄을 일삼는 그는 말하자면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대변하는 인물인 셈이다. 그는 거기에 모인 주객들과 더불어 제국주의 비판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들(로마 제국)의 문명은 어떠하였소? 광대했지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악취 분분한 문명이었죠. *하수구*, 하수도의 문명이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황야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적당하다. 여기에 여호와와 제 단을 만들자* 라고. 로마인은 그의 발자취만 따라다니는 영국인처럼 그 발길이 닿는 새 해안 어느 곳이나 (마침 우리 해안에는 발길이 닿지 않았지만) 배설물에 대한 강박관념 만 가지고 다녔죠. 그들은 토가를 입고 주변을 살피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적당하다. 여기에 수세식 변소를 만들자* 라고. (U 7. 489-495)

맥휴 교수의 제국주의 문명의 해체는 로마 제국 문명의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 같지만 앞뒤 문맥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영 제국 문화의 저질성의 매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문화의 저질성을 부각시킨 다음 이를 다시 아일랜드 문화의 우수성과 대비시켜 영국 문화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로마인의 발자취만 따라다니는 영국인”의 문명은 로마의 문명과 마찬가지로 “배설물에 대한 강박 관념”(cloacal obsession)¹⁾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청결을 중시하는 아일랜드인의 문명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말로 이어진다. “우리의 고대 선조들께서는 ‘가니스’ 제1장의 말씀대로 흐르는 맑은 물에만 집착했는데”라는 리니헌의 말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선천적인 신사분들이셨죠”라는 J. J. 오몰리의 맞장구(U 7. 496-499)가 영국 문화와 아일랜드 문화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대 아일랜드 선조들은 흘러가는 맑은 물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배설물 강박증에 사로잡힌 영국인들은 수세식 화장실 만들기에 몰두하여 로마인들처럼 일찍이 수세식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리하여 “수세식 변기에 도사리고 앉은 영국인 지배자들은 스윙프트 이후로 아일랜드인들을 ‘더러운 불평만 일삼는 ‘괴물’(Yahoos) 취급을 하기에 이르렀다”(Parrinder 193). 맥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식으로 역사적 개관을 통하여 영국문화의 저질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교만을 조롱한다.

맥휴 교수는 이어 다음과 같은 말로 영국 문화와 아일랜드 문화를 구별한다. 즉, 전자는 불결물투성이의 “물질 만능” 문화요, 후자는 “지성과 상상력”의 고귀한 “정신 문화”라는 것이다(U 7. 554-557).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 건립자와 하수구 건설자는 우리 정신문화의 주인이 될 수 없다”(U 7. 564-565)고 단언한다. 조이스는 여기서 카이버드(Declan Kiberd)의 지적대로, 맥휴 교수로 하여금 영국 문화에 대한 공격을 퍼붓게 하여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건립 이외에는 인류문명 발전에 공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도 아일랜드 문화를 자기들 문화의 일부라고 깔보는 그들의 방자한 태도를 고발한다”(995).

맥휴 교수의 영국 문화론은 조이스의 그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조이스는 트

1) 이 말은 원래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웰즈(H. G. Wells; 1866-1946)가 『초상』의 서평에서 처음 쓴 말이다. 조이스는 웰즈의 이 악담을 여기서 맥휴 교수가 그대로 쓰게 하여 영국 문화의 저질성을 성토한다. (Budgen 108을 참고할 것).

리에스테의 친구 브루니(Alessandro Francini Bruni)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일랜드는 예나 지금이나 대영제국의 두뇌임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선견지명이 있다는 따분한 영국인들은 인간의 불룩한 배(belly)에다 지극히 인락한 기구를 제공한 것 밖에는 없다. 그것은 수세식 변소다. 아일랜드인들은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그들 고유의 언어가 아닌 영국인의 언어이면서도 이 영어를 천분으로 알고 수용하여 다른 문명국가들과 정상을 향해 당당하게 경쟁한다. 이것이 소위 ‘영국 문화이다.’”(Potts 28). 이 말로 미루어 보아 맥휴 교수는 그의 영국 문화론, 특히 저질적인 배설물 강박증의 문명론에 관한 한 조이스의 견해를 고스란히 대변한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조이스의 대영(對英) 문화관의 반사경이다.

「키클롭스」장의 ‘시만도 영국 문화의 특성에 대하여는 맥휴 교수와 견해를 같이 한다. 영국의 문화란 퇴폐적인 “매독문명(syphilization)”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국수주의자인 ‘시만은 영국에 매독문명 이외의 문명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화장실 문화뿐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놈들에겐 음악이니 예술이니 문학이니 하고 부를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지. 놈들이 가진 문명이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서 훔쳐가지 않은 것이 없거든. 사생아의 유령 같은 허짖배기 자식들 같으니.... 놈들은 유럽인들이 아니야, ... 나는 파리의 케빈 이건 과 함께 유럽에 있는 적이 있지. 그때 보니까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놈들의 흔적이나 놈들의 언어를 찾아볼 수 없었어. 다만 수세식 변소 안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U 12. 1199-1205)

조이스는 영국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퍼붓는 맹목적인 ‘시만마저도 영국 문화의 본질에 관한 한 지식인 맥휴 교수와 인식을 같이 하게 하여 영국 문화의 배설성은 아일랜드의 특정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것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다.

영국문화의 특징은 그 부분성이 전부라는 조이스의 인식은 철저하다. 무의식의 제전인 「키르케」장에서 영국 왕 에드워드 7세로 하여금 배설물 강박증의 문화를 직접 대변케 하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키르케」장의 끝 부분에서 만취한 스티븐이 영국 왕을 모독하였다 하여 영국 병사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국의 병사들을 독전하기 위하여 스티븐의 환상 속에 에드워드 7세가 해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드워드 7세가 아치길에 나타난다.....그는 헛바닥이 빨강도록 대추 과자를 빨고있다... 그는 왼 손에 프랑스어로 “용변금지”라고 쓴 미장이의 물통을 들고 있다. 박수갈채로 그를 맞는다.)

에드워드 7세

(천천히, 엄숙하게 그러나 덤덤하게) 평화 있어라. 완전한 평화 있어라. 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손에 물통을 들고 왔노라. 그대들의 건투를 비네. (그는 그의 백성쪽으로 몸을 돌린다). 짐은 공명정대한 싸움을 관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기에 그대 두 병사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노라. 그대들은 ‘교활한 자와 대결하고 있음’을 명심할지이다. (그는 일등병 카, 일등병 콤포튼, 스티븐, 블룸 그리고 린취와 악수를 나눈다).

(박수 갈채. 에드워드 7세는 감사의 표시로 손에 든 물통을 우아하게 치켜든다.) (U 15. 4449-4465).

에드워드 7세가 “헛바닥이 빨강도록 대추 과자를 빨다”함은 “영국이 아일랜드로부터 경제적인 생피를 남김없이 빨아먹고 있다”는 뜻이고(Williams 171) 그가 들고 나오는 “용변 금지라고 쓰인 물통”은 그의 말 그대로 왕권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물통에 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왕이 흥등가에 나타나기 전에 블룸이 스티븐을 찾아 비버가를 해매고 있을 때 갑자기 변이 마려왔다. 그래서 그는 엉겁결에 인부들이 두고 간 맥주 통을 변기로 잘못 알고 거기다 대변을 보고 내버린 적이 있었다(U pp. 367; 377; 479; 482). 맨손으로 사창기에 나타난 왕은 이 “물통”을 발견하고 거기다 블룸처럼 실례하는 일이 없도록 “용변금지”라고 쓴 다음 그 물통을 자신의 “신분의 증명용”으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²⁾

에드워드 7세의 “물통”은 그 것 말고는 달리 영국을 대변할만한 상징물이 없음을 암시한다. 홀이 아닌 변기야말로 영국의 국체와 왕권을 대변하는 가장 적절한 상징물이라고 조이스는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영국 문화를 “배설물 강박증”의 문화라고 보는 것은 아일랜드인들 만의 편견이 아니라 영국인들 스스로가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본다는 야유가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2) 김슨(Gibson)에 의하면 이 장면은 지극히 모욕적이며, 조롱적이다. 조이스는 에드워드 7세를 이토록 희화하고 비틀고 훼손하고 격추시켜 영국을 모독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복수를 통쾌하게 하고 있다 (211-214).

조이스는 이처럼 배설적이미지러리를 이용하여 “야만적인 제국”의 문화를 철저하게 모욕한다. 영국 왕의 이 장면은 조이스의 지배국에 대한 조롱과 저항이 깔려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³⁾

블룸은 산고를 겪고 있는 옛날 이웃집 부인을 위문하기 위하여 밤늦게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가 거기서 그 날 처음으로 스티븐을 대면한다. 만난 지 얼마 아니 되어 술에 취한 스티븐이 친구 린취와 함께 흥등가로 향하자 블룸은 아버지 같은 심정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뒤에 혼자 그리로 찾아간다. 허겁지겁 사창가에 도착한 블룸은 스티븐을 찾아 해마다 경비원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환상에 빠진다. 법정에 서게 된 그는 그를 체포한 경비원으로부터 직업을 대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에 블룸은 더듬거리며 대답한다. “글쎄요, 문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나 할까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죠. 실은 내가 창작한 현상 당선 단편소설집을 곧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셈이죠.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언론계에 몸담고 있어요”(U 15. 802-805)

이 때 방창석에 앉아 있던 필립 보포이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 항의한다. 그의 손에는 「매침의 기막힌 숨씨」라고 적힌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표절가랍니다. 문필가의 가면을 쓴 말만 번지르르한 좀도둑이에요. 그는 천부적인 비열성을 발휘하여 본인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연애 대목의 상당 부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명명백백합니다. 그야말로 멋들어진 작품, 완전무결한 주옥같은 본인의 작품에서 말입니다. 사랑과 엄청 난 마력으로 충만한 보포이 작품은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대영제국 방방곡곡의 가정 상비서가 아닙니까. (U 15. 819-827)

이에, 블룸은 자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의 잣대로 볼 때 “독신자”(U 15. 857)이자 애송이 작가에 불과한 보포이의 글은 일부 한정된 표현을 제외하고는 태작에 지나지 않는다(U 15, 840)면서 그러한 태작을 표절할 리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의 보포이는 블룸이 자기 작품을 찢어 휴지로 사용한 사실을 마

3) 김순에 의하면, “조이스의 영국 문화의 왜곡과 조롱은 그 문화의 어느 특정 국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통치국의 전반적인 야만성(“brutish empire”)에 대한 도전, 전복, 그리고 폭로를 의미한다. 조이스는 권위적인 문화를 비틀고 모욕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속으로 분명히 쾌재를 불렀으리라.” (214)

참내 거론한다. 그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소리친다.”

인간의 도덕적 부패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저주받아 마땅한 악질적인 거짓 말입니다. (그는 가방을 연다.) 재판장 각하, 여기에 잡아떼려야 펴 수 없는 범죄 사실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 야수 같은 자의 각인 때문에 훼손당한 내 원숙한 작품의 전본이지요. (U 15. 842-845)

바로 이때, 블룸을 대신하여 방청석에서 이런 야유가 터져 나온다.

유대인의 왕이신 모세는, 모세는

『데일리 뉴스』지로 밑구멍을 훔치셨다네. (U 15. 847-848)⁴⁾

방청석의 이 야유에서 우리는 블룸이 아침에 보포이의 글을 찢어 화장지로 사용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모세는 아일랜드인 블룸을 가리키고 『데일리 뉴스』지는 런던에서 발간되는 영국의 비중 있는 일간 신문을 가리킨다.⁵⁾ 그러므로, 이 야유는 아일랜드인 블룸은 영국의 권위를 자랑하는 일간지도 예사로 화장지로 쓰는 사람인데 그까짓 싸구려 잡지에 실린 현상소설을 찢어 뒤지로 찢기로서니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뜻이다. 블룸에 대한 성원ियो, 교만한 영국인에 대한 질책이기도 한 이 방청석의 항의를 통하여 우리는 블룸 자신이 밝히지 아니한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윌리엄즈(Trevor Williams)의 지적대로 “블룸이 아침에 영국의 『탯비츠』를 찢어 뒤를 닦는 것은 그것이 비록 개인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아일랜드인을 대변하는 일종의 영국에 대한 멋진 저항 행위이고, 밤에 방청석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새로운 ‘주장을 듣게 되는 것은 그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음을 암사’(208)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욱 뚜렷해지듯 조이스는 영국인의 발간물은 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배설 문화의 소산인 만큼 배설물 제거에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경멸적인 인식을 깔고 있음

4) 이 야유는 다음과 같은 더블린 속요의 개사(改詞)다. “유대인의 왕이신 거룩하신 모세는/ 마누라를 팔아 신발을 사셨지/ 신발이 닳기 시작하자/ 거룩하신 모세는 욕을 하기 시작했지/ 신발이 다 닳아빠지자/ 거룩하신 모세는 고향을 지르기 시작했지.” (Kiberd 1130).

5) 『데일리 뉴스』는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기 시작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일간 신문이다. (Gifford 464)

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이스는 아일랜드를 억압하는 통치국 영국의 문화는 배설물 강박증의 소산이라는 인식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이는 영국에 대한 적개심의 반영이자 멸시감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맥휴 교수의 영국 문화의 저질 성의 해체로부터 블룸의 화장지 사용에 이르기까지 조이스의 지배국에 대한 야유와 저항, 그리고 풍자가 아닌 것이 없다. 배설적 언어의 구사는 아니꼬운 대상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다. 배설물에는 세척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대영제국을 겨누어 분변학적 언어를 투척함으로써 무혈의 복수를 감행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인의 누적된 울분을 “정화”한다.

IV. “우리나라는 나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U 15. 4471)

조이스는 영국 문화를 능멸한다고 해서 그의 조국 문화에는 호의적인 것도 결코 아니다. 아일랜드 사회 전역에는 배신, 국수주의 그리고 이성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먼 감정주의(sentimentalism 또는 emotionalism)가 팽배해있다고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의 비판은 오히려 더 매섭고 날카롭다. 스티븐은 「텔레마코스」 에피소드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가난한 우유 배달 노파를 바라보며 “그녀를 섬기느냐, 비난하느냐,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호의를 결코 구걸하고 싶지는 않다”(U 1. 406-407)고 생각한다. 스티븐의 이러한 명상은 “예술가로서의 스티븐은 다른 문예부흥주의 시인들처럼 조국에 아첨을 하여 나라에 봉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판자가 되어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한다(Kiberd 947). 스티븐은 「키르케 장에서 영국 병사와 연쟁이 붙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U 15. 4471)라고 외치기도 한다. 스티븐의 이 취중 호언은 조국을 조국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국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의 결의의 표명, 바로 그것이다. 조국의 예찬이나 맹종보다는 조국이 가진 맥진하도록 비판의 채찍을 가하여 정신을 바로 차리도록 하는 것이 그의 올바른 국민 된 도리라는 태도다. 스티븐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작가 조이스의 아일랜드에 대한 태도다.

조이스는 일찍이 「교리 성성」에서 문예 부흥 운동가들을 싸잡아 “무언극 배우들의 무리”라고 지칭한 다음 그는 솔직성도 정직성도 없는 그러한 무리의 일원이 될 수 없다(CW 150)면서 혼자만의 외로운 비판의 길을 걷겠노라 선언하였다. “그들이 웅크리고 앉아 굽실거리면서 무언가를 빌고있는 곳에 나는 두려움 없이, 속명처럼 서 있다/ 동지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리고 나 홀로/ 창어 뼈처럼 냉철하게/ 사슴이 뿔을 창공에 휘두르는 산등성이처럼 의연하게/ 그들이 나를 문전 박대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그들을 영원토록 박대하리라”(CW 152).

우리는 『더블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조이스가 얼마나 동포들에게 혹독한 채찍을 가했는가를 이미 알고 있다. 아노미(anomie)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그의 채찍이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서는 동포들의 잠을 깨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소산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신적 해방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길이었다”(L 1, 62-63). 출판의 교섭 과정에서 그는 출판사로부터 명예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외설적인 표현의 삭제나 수정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좀처럼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내용을 감히 고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매우 뻔뻔스런 자일 것이다... 내가 쓴 것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만일 내용을 조금이라도 고친다면 『더블린 사람들』은 소금 없는 달걀쫄이 되고 말 것이다”(L II, 134-135). “수천 년 간 유럽의 수도의 하나인 더블린”(L II, 122)의 시민다운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이스는 동포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구사한 조국 비판의 방법이었다. 그는 그 소산을 굽히지 않기 위하여 이 책이 햇빛을 보기까지 9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출판인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 스티븐의 외침대로 아일랜드를 호되게 비판한다.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당시의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는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피스가 당시 이끌고 있던 이 정치적인 운동은 심각한 맹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항영(抗英) 투쟁이란 미명아래 국수주의와 인종차별의 길만 걷고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 주제인 「키클롭스」장에서 화자의 하나로 애꾸눈의 ‘시만’을 등장시킨다. 게일인 운동경기연맹(Gaelic Athletic Association)의 창설(1884)자인 마이클 쿠삭(Michael Cusack: 1847-1906)을 모델로 한 이 인물은 쿠삭이 평

소에 ‘시만’으로 불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그저 ‘시만’으로 나오게 한다. 철저한 국수주의자인 ‘시만’은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아무런 좌표나 뚜렷한 철학도 없이 맹목적으로 영국 공격이나 퍼부으면서 인종 차별과 폭력 예찬만 늘어놓는다.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영국인들처럼 반민중적인 아일랜드의 부재지주(U 12. 1315-1316)라는 점이다. 동포의 등을 치는 부재지주이면서도 그는 영국의 수탈 정책을 맹렬한 어조로 공격하는가 하면 민족의 자존을 외치면서도 온종일 술집에 도사리고 앉아 공짜 술이나 탐하는 인물로 묘사하여 조이스는 민족주의자의 위선과 자가당착을 고발한다. ‘시만’은 이 장의 끝에서 블룸이 경마로 거액을 땄다는 거짓 정보를 사실로 잘못 알고 술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간의 쥐처럼 약은 유대인”(U 12. 1761)이라면서 술집을 나가려는 블룸에게 비스킷 깡통을 던지기까지 한다(U 12. 1853-1857). 조이스는 쿠삭을 ‘시만의 모델로 삼을 때부터 민족주의운동의 폭력성을 조롱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남의 눈의 타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U 12. 1237-1238) ‘시만의 무지를 통하여 민족주의의 맹목성까지 들추어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조이스가 ‘시만을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추악한 얼굴”(Parrinder 172)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비판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V. “여기는 『프리먼즈 소변기』와 『위클리 똥땀개』사예요”

(U 15. 812)

조이스가 평소애 골머리를 앓는 다른 사회 문제의 하나는 더블린의 언론계였다. 그는 “더블린의 병폐는 부패한 언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학 때의 친구(Francis Skeffington)와 함께 한 때 새로운 일간지를 창간할 계획까지 하였다. 그 계획은 비록 자금 조달 난으로 불발로 끝나기는 했지만 창간하려던 일간지 이름을 “『프리먼즈 저널』, 『아이리시 타임스』,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의 제호와 는 대조적으로 다분히 악의 섞인 『마귀』(The Goblin)로 하려 하였다”(Ellmann 1982, 140)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기성 유력 일간지에 그가 얼마나 큰 불만을 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비판의 화살을 이번에는 언론계를 향하여 겨눈다. 그는 비록 신문 창간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보신주의에 급급한 기성 언론의

부패상은 그대로 덮어둘 수 없었다.

조이스의 언론계 비판은 민족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프리먼즈 저널과 내셔널 프레스』(1763-1924)지의 광고 사원 블룸의 업무 활동을 통하여 전개된다. 아침에 번을 보고 집을 나선 블룸은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정오 경에 그의 근무처에 도착한다. 조간지인 이 신문사 건물 안에는 자매지인 석간지 『이브닝 텔레그래프』와 매주 일요일에 나오는 주간지 『위클리 프리먼과 내셔널 프레스』, 『스포츠 뉴스』, 그리고 『스포츠』사가 입주해 있다. 이들 정기 간행물은 발행인이 모두 한 사람(William Brayden: 1865-1933)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쓰면서 직원들은 서로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 이 언론재벌의 간판 신문격인 『프리먼즈 저널과 내셔널 프레스』지는 “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으로 조이스 당시에는 ‘아일랜드 의회당의 합헌적 민족주의 기관지였다’(재인용 Herr 69).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아일랜드의 자치를 지지하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중도 보수주의 색채가 짙었다’(Gifford 72). 이 신문의 바로 이런 기회주의적인 중도 노선 때문에 조이스를 포함한 당시의 진보적인 지식인들로부터 삼한 지탄을 받았다.

블룸은 최근에 차(tea) 도매상인 알렉산더 키즈(Keyes)씨로부터 광고 갱신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성사시킬 준비를 한다. 그는 키즈씨로부터 현재대로 『프리먼즈 저널』에 광고를 싣되, 자매지 『이브닝 텔레그래프』에도 자기 업소를 선전하는 절박한 문구를 무료로 실어주고, 도안은 현재와는 달리 그의 이름의 의미에 걸맞도록 두 개의 열쇠를 X자 형으로 서로 엇갈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 그는 키즈의 요구를 바탕으로 광고 도안가로서의 솜씨를 발휘하여 정치성 짙은 의욕적인 도안을 구상한다. 열쇠를 두 개 X자 모양으로 가로질러 놓고 그 주위에 원을 친 다음 그 원 위에다 “열쇠의 집”(The House of Keys)이란 글을 넣으려 한다. “열쇠의 집”은 맨 섬(the Isle of Man)의 하원의 상징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이 작은 섬은 영국의 속령이면서도 독립된 의회를 가지고 있으리만큼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블룸이 고안한 “열쇠의 집”은 국가적인 열쇠를 빼앗긴 아일랜드가 잃어버린 열쇠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치 쟁취 운동가들의 주장을 상징하는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블룸은 그의 상사로부터 구상중인 도안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텔레그래프』사의 업무국장 난네타에게로 간다. 난네타는 더블린의 현역 정치가(U 7. 106)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정치 현실을 상징하는 그의 도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리라 기대하면서 그에게 도안 내용을 설명한다.

이럴 작정이지요, 여기다 열쇠 두 개를 서로 엇갈리게 놓는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 원을 하나 두릅니다.. 그러고는 그 밑에다 이름을 넣으려고 해요, 차, 주류 도매상, 알렉산더 키즈라고요...그 다음에는 원 주위로 행간을 떼어 열쇠의 집이라고 쓴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아이디어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의 핵심은 열쇠의 집입니다.... 의원님, 맨 섬의 의회를 알고 계시죠. 자치 운동의 암시이지요. 아시다시피, 맨 섬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의 눈길도 끌 수 있을 겁니다. ... 그리고 주목을 끌만한 짝박한 무료 선전문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 상투적인 문구 있지 않습니까. 고급 특허 주류상, 고대하시던 명품 완비, 등등...하는. (U 7.142-143, 145-146, 149-151, 156-158).

광고 도안에 담긴 정치적인 함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난네티⁶⁾는 한참만에 그 도안은 실어줄 수 있다고 입을 떼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광고 재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못을 박으라는 것이다. “실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재계약 기간은 3개월을 보장하라고 그러세요”(U 7. 160). 난네티의 이 말은 광고주로부터 3개월의 보장을 받지 못하면 무료 선전문도 “열쇠의 집” 광고 도안도 실어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난네티의 이 뜻밖의 전제 조건이 블룸에겐 큰 부담이 된다. 광고주를 다시 만나 회사측의 요구를 전하면서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찾아가 만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가 출타 중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 전화로 소재부터 확인하기로 한다. 전화로 수소문 끝에 키즈씨가 경매장에 있음을 알아낸 그는 편집국장 크로포드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한다. 크로포드는 이에 허풍 섞인 어조로 오만하게 답한다. “떠나시오! 세계가 당신 앞에 열려있으니까요”(U 7. 435).

광고주를 만난 블룸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할레벌떡 신문사로 돌아온다. 현장에서 편집국장에게 즉각 전화로 보고하려 하였으나 크로포드는 맥휴 교수

6) 여기서 난네티가 “열쇠의 집”이니 “맨섬의 의회”니 “고대하시던 명품 완비”니 하는 정치적 함의가 큰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내의 구성원 중에 총독부의 꼬나풀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아일랜드의 기성 언론이 예민한 정치 문제 다루기를 기피하는 경향을 암시한다.” (Herr 71)

에게 대신 전화를 받게 하여 직접 와서 보고하라는 간접적인 요구를 들었기 때문이다. 블룸이 귀사한 때는 공고롭게도 편집국장이 맥휴를 포함한 주당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신문사를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블룸은 크로포드의 길을 막고 서서 광고주를 만난 결과를 보고한다. “키즈씨로부터 재계약 기간은 3개월 대신 2개월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그가 요구하는 도안 내용과 도안의 참고 자료를 구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U 7. 971-979). 그랬더니 크로포드가 불쑥 한다는 말이 “그 양반 내 똥구멍이나 빨아먹으라고 그러세요”(U 7. 981)다. 편집국장은 난네티와 마찬가지로 도안의 내용에는 아랑 곳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간을 수락하지 않으면 상종도 하기 싫다는 태도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3개월의 요구에 당장 응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다니, 이 고약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 블룸은 다시 설명한다. 그러나 크로포드는 더욱 상스러운 소리를 내뿜으며 그냥 가버린다. “내 고귀한 아일랜드 똥구멍이나 빨아먹으라지. 마음 내키는 대로 언제든지 그러라고 전하세요”(“He can kiss my royal Irish arse. Any time he likes, tell him”)(U 7. 991-992).

블룸이 어안이 병병하여 멍하니 서 있을 때 크로포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술집으로 치닫는다. 그 바람에 “열쇠의 집”의 도안의 계획은 물론, 5기니의 광고 수입료를 받으면 부인 몰라에게 실크 속치마를 사주려던 그의 소박한 꿈(U 8. 1061; 11. 189-190)마저 깨어지고 만다. 블룸이 그 날 사업상의 성과를 올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참하게도 편집국장의 똥구멍을 빨아먹으라는 부탁을 받은 것뿐이다(Blamires 54). 그는 남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좀체 하지 못하는 성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일을 하소연하거나 불평은 하지 않지만 여신상의 동상에도 향문이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 일과 더불어 그가 그 날 이루지 못한 일 중의 하나로 기록하고 만다(U 17. 2074).

블룸의 업무적인 계획을 짓밟고 마는 “내 똥구멍이나 빨아라”라는 크로포드의 욕설은 기포드에 의하면 “악마의 제자들이 악마에게 맹종을 과시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다(151). 크로포드는 스티븐이 신문사로 가져온 소의 구제역에 관한 원고의 가장자리가 찢긴 것을 보았을 때도 “누가 여길 찢었어? 갑자기 변이 마려웠나?”(U 7. 521)라고 내뿜었듯이 배설적인 언사가 그의 입에 발려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다분히 그의 무의식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평소의 그의 친영 감정의 무의식적인 발로라는 점이다. 이는 특히 그의 “고귀한

(royal)”이라는 말이 뒷받침한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군주주의 왕조에 경도된 친 영성이 짙은 말이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크로포드의 이 상말을 통하여 그가 편집 국장으로 있는 『프리먼즈 저널』은 “열쇠의 집”이라는 민족적인 염원과 관계없이 악마의 제자가 악마에게 아부를 하듯이 총독부의 비위나 맞추면서 영리 추구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조이스의 이러한 암시는 크로포드가 『프리먼즈 저널』에 근무하기 전에 “더운 물 찬 물을 한꺼번에 마시기 위하여” “바람개비처럼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녔다”(U 7. 307-312)는 대목에서 구체화된다. 게다가, 크로포드는 친구들의 우려를 살 정도로 “얼굴빛이 새빨간”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하다(U 7. 366-367). 한마디로 크로포드는 기회주의자요, 위선자요 성격 파탄자다. 조이스는 이러한 부적격자가 민족의 대변자로 자임하는 재벌 신문사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블린 언론계의 부패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았다.

누적된 무의식의 제전인 「키르케」장에 『프리먼즈 저널』의 편집국장 크로포드가 다시 등장한다. “마일드 크로포드가 이빨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우고 발작적으로 걸어온다. 그의 주홍빛 콧등이 밀짚모자의 후광을 받아 번쩍인다. 그는 한 손에는 한 다발의 스페인산 양파를 달랑달랑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 송신기 주둥이를 귀에 대고 있다.” 그리고는 전화로 이렇게 말한다.

(수탉 육수처럼 늘어진 턱살을 흔들면서) 여보세요, 여기는 778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프리먼즈 소변기(Urinal)와 위클리 똥똥개(Arsewipe)사에요...(U 15 .806-813)

조이스는 이렇게 크로포드를 등장시켜 모질게 그를 풍자한다. 여기서 “주홍빛 콧등”은 알코올 중독증의 표시이고, “스페인산 양파를 들고 있다”함은 악취를 풍기는 그의 욕설벽(coprolalia)을 가리킨다. 그리고 “수탉 육수.....”는 배신자를 상징한다. 수탉이 울기 전에 돈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성경상의 이야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Blamires 46).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다처럼 불륜의 개인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여망을 배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크로포드의 거동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은 불륜이 낮에 업무상의 활동을 하면서 몸소 겪은 일들에 토대를 두고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소변기”와 “똥똥개”라는 말이 그렇다. 크로포드가 술집으로 향하면서 블

룸에게 “내 똥구멍이나 빨아먹으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크로포드의 그 말이 연상이 되도록 그로 하여금 여기서 그의 신문 『프리먼즈 저널』을 “『프리먼즈 소변기』”로 『위클리 신문』을 “『위클리 똥땀개』”라고 말하게 한다. 여기에는 물론 그의 배설적인 언사는 광고주 키즈에게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신문이다 대고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이스의 야유가 들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은 크로포드로 하여금 그의 신문들은 소변기와 똥땀개의 가치밖에 없음을 자백케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이스가 이 신문에 대하여 평소에 품고있던 불만의 표출이 아닐 수 없다. 남이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편집을 책임진 당사자가 몸소 평가케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일 것이라는 조이스의 서술적 전략에서 우리는 그의 풍자의 강도를 느낄 수 있다.

『프리먼즈 저널』을 『프리먼즈 소변기』라 함은 “Urinal”이 “Journal”의 편임은 분명하지만 심층적으로 따져보면 영국인들이 즐겨 쓰는 아일랜드의 별명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스피어즈(Richard A. Spears)의 속어 사전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에는 비가 잦다는 이유로 1600년대부터 아일랜드를 ‘행성의 소변기라고 즐겨 불렀다(410). 조이스는 영국인들의 이런 경멸적인 별명을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신문 이름에다 그대로 대입시켜 이 신문을 『프리먼즈 소변기』라고 비하하는 것 같다. 영국인들이 꼬집는 소변기는 아일랜드 전부가 아니라 『프리먼즈 저널』만이 소변기임을 명시하려는 뜻에서 말이다.

『프리먼즈 저널』에 대한 불만은 조이스 만의 것이 아니었다. 허(Herr)와 콘넬(Connell)에 의하면, “내막에 밝은 더블린 사람들은 1904년 당시 이 신문은 아일랜드 총독 부인과 더블린 대주교의 손아귀에서 놓고 있다고 다 알고 있었다”(35)고 한다. 신 페인 운동의 지도자 그리피스도 이를 “진정한 아일랜드인의 자유와 민족자결주의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인 어용지”(재인용 Herr 69)라고 성토했거니와 ‘키를롭스’의 ‘시만마저도 총독부에 “매수된 기관지”(U 12. 218)라고 규탄한다.

조이스는 자신의 불만은 물론 세간의 원성까지 대변하여 본분을 망각한 배신적인 언론계를 매도한다. 이 풍자적인 매도에서도 그는 배설적인 언사의 무기를 쓴다. 상업주의만을 추구하는 『프리먼즈 저널』을 두고 “소변기”니 “똥땀개”니 하는 것은 거기다 오물탄을 던지는 행위와 다름없다. 오물탄을 던짐으로써 그는 이 신문에 대한 울분을 어느 정도 삭이면서 이 신문이 빨리 표리부동의 가면을 벗기를 바란다고 할 것이다.

VI. “내 묘비명을... 아무도 쓰지 마세요. 나는. 뿌우우웅. 내 의무를 다 했소”(U 11. 1291-1294)

조이스의 머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는 들뜨기 잘 하는 동포들의 감정주의였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훈련이 부족하여 연상적인 사고에 잘 빠지면서 환상에 좌우되는 충동적인 국민”(Ellmann 1982, 395)이라고 보았기 때문에⁷⁾ 이 문제로 그는 항상 괴로워하였다. 쉽게 말하면, 아일랜드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성적인 성찰을 할 겨를도 없이 흥분부터 먼저 하는 양철 냄비 같은 기질을 갖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고질적인 단점은 부흥주의 시인들의 한결같은 폭력 예찬과 시민들의 음주벽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보았다(Cf. Potts 28) 그리하여 그는 친구 칼럼 (Padraic Colum: 1881-1972)에게 동포들의 정신적인 병폐로 “육체 생활상의 폭력과 정서 생활상의 감정주의 (sentimentality)”를 거론하면서 “이는 똑같이 두통거리”(재인용 Manganiello 113)라고 개탄하였다.

조이스의 이러한 개탄은 주로 문예 부흥주의자들의 자세를 겨냥한 것이었다. 동포들의 감정주의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부흥주의자들이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국을 상대로 폭력 항쟁을 하다가 희생되는 애국자가 나오기만 하면 앞을 다투어 그러한 죽음을 예찬하면서 미화를 일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덩달아 그들을 영웅시하면서 흥분과 탄식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일반인들의 감정주의도 문제지만 이를 조장하는 부흥운동 시인들의 감정주의가 더욱 문제라는 것이 조이스의 인식이었다. 그가 일찍이 「교리 성성」에서 부흥운동의 주도자인 예이츠를 다음과 같이 풍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요란한 귀부인들의 경박성을
재빨리 충족시키는 그인지라

7) 엘만에 의하면, 조이스의 이 지론은 “아마도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가 ‘히브레리즘과 헬레니즘’ 론에서 주장한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사고방식상의 근본적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바, 그리스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반하여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1982, 395)

금빛으로 아로새긴 켈트적인 가장자리 장식을 한 채
그가 울고있으면 귀부인들이 달려와서 위로를 하는구나. (CW 150)

여기서 “요란한 귀부인들”은 그레고리(Lady Gregory: 1852-1932)와 호니먼(Miss Horniman)과 같은 열렬한 여성 부흥주의자들의 지칭으로, 예이츠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울고있다”는 것은 그의 값싼 감정주의를 꼬집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이스는 왓슨(G. J. Watson)의 적절한 지적대로 “아일랜드의 문학과 민족주의는 공생이라도 하듯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42)고 믿었기 때문에 부흥주의자들의 영웅숭배 문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고는 일반인들의 감정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길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문예부흥주의자들의 단골 메뉴의 하나인 영웅 로버트 에밋(Robert Emmet 1778-1803)을 대상으로 사정없이 비판하기 시작한다.

에밋은 더블린 캐슬(Castle: 아일랜드 총독의 관사이자 총독부 청사)을 점거하려다 체포되어 25세의 젊은 나이에 공개 처형된 혁명가이다. 학생시절부터 민족주의 운동에 투신한 그는 나폴레옹군의 지원을 받아 캐슬을 탈취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갔다. 프랑스의 무력 지원을 약속 받은 그는 거사를 감행하려 하였으나 나폴레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다가 그의 동료 반군마저도 대부분 꿈무늬를 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동조자들만으로 총독부 진격을 시도하다가 영국 군정의 방어망을 뚫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쫓기는 신세가 된 그는 약혼자 사라 커런(Sara Curren)에게 미국으로 같이 도피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뒤에 작별인사를 하기 위하여 그녀를 다시 몰래 만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 회부된 그는 반란죄로 교수형 선고를 받고 더블린 시내에서 공개리에 처형되었다. 꽃다운 나이에 교수형을 당한 이 혁명가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아무도 내 묘비명을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여러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지위를 확보하는 날이 오기까지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내 묘비명을 아무도 쓰지 마세요. 나는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요.”(Gifford 124, 310). 아일랜드인들은 이 유언을 액자에 담아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고 그를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하였다. 에밋의 실패한 봉기는 뒤에 많은 희생자를 낸 1916년 부활절 의거(Easter Rising)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의 죽음은 부활주의

문인들의 끝없는 예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아일랜드어 부활운동의 선구자요 뒤에 부활절 봉기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 피어스(Patrick Pearse 1879-1916)는 그의 유언을 “여태까지 아일랜드인들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말”이라면서 “장엄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재인용 Manganiello 148).

그러나 조이스는 에밋의 거사에 대하여 지극히 비판적이다. 캐슬의 점거 방법도 문제지만 그의 실패한 봉기는 아일랜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 에밋의 거사는 그 자체가 무모하다고 보았다. 치밀한 사전 계획도 없이 극소수의 오합지졸만으로 그 철통같은 총독부 건물을 접수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순간적인 충동심의 발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에밋의 거사는 조국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적국만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영국 통치자들은 에밋의 ‘폭동’을 핑계로 식민지 백성들의 자유를 더욱 옥죄기 시작하였고 『프리먼즈 저널』과 같은 무기력한 언론을 앞세워서 반 프랑스 감정을 조장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편 그의 죽음은 동포들의 패배주의만 심화시켰다. 영국의 탄압이 심해지자 동포들은 에밋의 비운을 마음속으로 추모나 하면서 입을 다물고 살아야만 하는 그들의 생활을 그저 운명이라니 하는 체념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조이스는 이 에밋의 거사를 거침없이 “어리석은 반란”(CW 189)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에밋에 대하여 비판적인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세이렌」장에서 그를 풍자의 도마 위에 올린다. 음악이 주제인 이 장의 끝에서 블룸의 방귀소리로 이를 풍자한다.

오먼드 호텔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블룸은 다른 곳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가까워 거기서 나온다. 길을 걷고 있노라니까 자꾸만 방귀가 나오려 한다. 점심 때 반주로 마신 버전디나 저녁 식사 때 마신 사이다 때문이려니 생각하면서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자꾸만 도둑 방귀가 나온다(U 11. 1180; 1203; 1241). 그래서 그는 시원하게 방귀를 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찰라(U 11. 1247), 맞은 편에서 낮익은 창녀가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언젠가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지저분한 매춘부”(U 11. 1252)다. 그는 그녀를 피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고 라이오넬 막스 골동품가게의 진열장으로 눈길을 돌린다. 그 진열장 안에는 “근엄한 영웅” 로버트 에밋의 천연색 초상화와 그의 얼굴 마디로 된 유언이 진열되어있다. “블룸은 라이오넬 막스의 진열장에 걸린 당당한 모습의 천연색 초상의

영웅을 쳐다보았다. 로버트 에밋의 유언 일곱 마디의 최후의 말들”(U 11. 1274-1275).

바로 이 때, 호텔의 바 안에서는 벤 둘라드의 애국을 주제로 하는 「식발의 소년」(*The Crappy Boy*)이란 노래의 열창이 끝나 여급들과 먼저 노래를 뽑은 주당들이 둘러앉아 축배를 들고 있다. 이는 밤낮으로 술타령만 일삼는 아일랜드인들의 감정주의를 상징하는 극적인 장면이다. “가까이는 청동 빛 머리칼의 바걸로부터 멀리는 황금 빛 머리칼의 바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일제히 딸랑대는 글라스를 부딪쳐 쨍그랑 소리를 냈다... 최고음부의 리드, 데덜, 카울리, 커넌, 5도음정의 둘라드, 즉 리드웰 사이먼 데덜러스, 봄 카울리, 톰 커넌, 그리고 물건 큰 벤 둘라드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 / ---우리 다 같이 전배합시다/ 그들은 잔을 들었다/ 쨍그랑. 쨍그랑”(U 11. 1269-1280). 조이스는 이렇게 블룸의 방귀가 급한 순간을 호텔 밖에서는 영웅의 초상화를 보게 하고 호텔 안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판을 벌이게 하여 두 장면을 공시적으로 병치시킨다. 문예부흥주의자들의 이상과 시민들의 감정주의를 싸잡아 공격하기 위해서다.

때마침 거리에는 전차가 굉음을 지르며 굴러간다. 블룸은 창녀가 지나가자 영웅의 유언 순서에 맞추어 참았던 방귀를 내뿜는다.

파도블룸, 번질이블룸은 마지막 말들을 지켜보았다. 조용하게. *자구상의 여러 국가 가운데서.*

뿌우웅 (방귀소리).

버(건디) 때문임이 분명해.

뿌웅! 뿌우. 뿌우웅.....

우리나라가 당당히 그 지위를 확보할 때 뒤엔 아무도 없지. 그 여자는 지나갔지.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전차가 쿵 쿵 쿵. 철호의 찬(스). (전 차가) 들어오는군. 철커덩철강철강. 버건디 때문임이 틀림없어. 맞았어, 하나, 둘. *내 묘비명을.* 철커르르웅. *아무도 쓰지 마세요* 나는 뿌우우웅.

내 의무를 다 했을 뿐이오 (U 11. 1284-1294) (필자의 괄호)

애국자의 유언을 향하여 블룸이 대로상에서 방귀를 끼는 것은 조이스의 “아일랜드의 엄숙주의에 대한 분변학적 야유”(Parrinder 171)가 아닐 수 없다. 조이스가 블룸으로 하여금 터져 나오려는 방귀를 참게 하였다가 전차의 소음을 이용하여 영

웅의 초상이다 이를 방사케 하는 것은 영웅의 얼굴과 주당들의 술판이다 한꺼번에
오물을 퍼붓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조이스는 경멸감의 표시로 방귀를 즐겨 쓴다. 그는 ‘시만’으로 하여금 프랑스인
들을 비난하는 자리에서 “놈들은 구운 방귀만도 못한 것들이었어”(U 12. 1386) 라
고 말하게 하는가 하면, 물리더라는 여성 민족주의자들의 정치 이야기에 생각이
미칠 때 “참새 방귀 같은 소리”(U 18. 879)라면서 비웃게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엘만의 지적처럼 조이스가 방귀를 멸시의 징표로 사용한 적절한 예는 따로 없
을 것이다. 엘만에 의하면, “조이스가 로마에서 가난에 찌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곳 생활의 어려움을 알리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언젠가는 그 영원의
도시 로마를 떠날 날에 대비, 상징적인 작별을 고하기 위하여 ‘뒤쪽으로 갈길 방
귀를 비축하고 있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아와 비슷한 경멸적인 상징
성이 블룸의 방귀 장면에 약동하고 있다”고 밝힌다(1972, 106-107).

엘만 식으로 말하면, 조이스가 로마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로 방귀를 먹일 준비
를 하였듯이 그는 여기서 블룸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봉기”를 한 아일랜드의 영웅
에게 직접 방귀 세례를 퍼붓는 셈이다. 이는 영웅의 폭력을 신성시하는 부흥주의
자들에 대한 야유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당히 춤을 추는 동포들의 감정주의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조이스가 블룸의 방귀 장면을 에밋의 유언을
보는 순간과 오먼드 바 안의 술판 자리를 병치시킨 것도 영웅의 죽음과 동포들의
감정주의자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조이스는 「키클롭스」장의 가장 긴 삽입문(interpolation)(U 12. 525-676)에서도
“영웅 순교자” 에밋의 처형 현장을 빚대어 혹독한 풍자를 하기 때문에 피크(C. H.
Peake)같은 비평가는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쉽게 울고 쉽게 우는 싸구려
구경거리에 굶주린 국민임을 여실하게 보여준다”(Peake 238)는 말까지 한다. 이런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동포들의 감정주의가 조이스에게는 얼마나 큰 골칫거리였던
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의 비판에도 배설적인 인사를
구사한다. 왓슨이 “우리가 『올리시즈』를 자극히 정치적인 작품으로 보는 이유는
작가가 아일랜드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맹점을 포괄적으로 들추어내어 여기다 정
면으로 철저히 모욕을 퍼붓기 때문이다”(42)라고 한 말은 정곡을 찌른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을 쓰면서 시민들의 감정을 건드려야 했

듯이 『울리시즈』에서도 사회적인 여러 병리현상에 대하여 모욕을 가한다. 여기서 그가 배설적인 언사로 모욕을 하는 것은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악취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일랜드라는 환자가 악취의 충격을 받고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야만 “아일랜드의 문명의 발전”(L I, 64))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설물로 풍자하기는 조이스가 조국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술적 처방이었다

VII. “나는 ... 아득한 미래를 위하여 그 무엇을 건설한다는 확신
아래 이 작품의 대부분을 ... 썼다” (Potts 158)

“카타르시스정화”가 자신의 성무라고 선언한 작가 조이스는 『울리시즈』에서 그의 그러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영국의 야만성을 규탄하는 데도, 아일랜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데도 다 같이 배설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배설물에는 세정력이 있다는 그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통치국과 그 피해자인 식민지 조국을 가릴 것 없이 그를 억압한다고 보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분변학적 용어로 풍자를 가하는 것은 우선 조이스 자신의 이에 대한 울분을 ‘카타르시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억압적인 요인들이 하루 빨리 ‘정화’ 내지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의 염원도 함께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배설적 풍자는 그 자신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해방”(L 1, 63)을 앞당기기 위한 예술적인 전략의 하나라 하겠다.

사족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숙고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이스의 배설적 풍자는 억압적인 결핍들의 제거가 목적의 전부인가, 아니면 그것이 제거된 자리를 채울 새로운 비전의 제시도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이스 자신이 직접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울리시즈』를 쓸 당시의 작가 자신의 자세를 근거로 하여 그 유추는 가능할 것이다. 그는 펜 대회(1937년 파리에서 열람)에서 만난 폴란드 작가(Jan Parandowski)에게 『울리시즈』를 집필할 당시의 국제 정세와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율리시즈』의 대부분을 전쟁 동안에 썼습니다. 모든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제국이 멸망하고, 왕들은 추방되고, 낡은 질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붕괴되고 있을 때였지요. 그러한 모든 파괴의 와중에서도 나는 집필에 전념하면서 나는 머나먼 장래를 위한 그 무엇을 건설하고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Potts 158)

그의 말에 의하면 1차 대전(1914-1918)의 포성을 피해 중립국 스위스에서 대부분을 쓴 이 작품은 “머나먼 장래를 위한 그 무엇을 건설한다”는 일념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리시즈』 쓰기는 곧 장래를 위한 그 무엇의 건축 공사라는 뜻이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아무리 세월이 가도 퇴색하지 않을 불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머나먼 미래를 위한 그 무엇”은 무엇인가? 이 문제 역시 조이스 자신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작중인물의 산발적인 의식과 발언을 통하여 그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븐과 블룸은 조이스의 분신(*alter ego*)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체제적인 성향이 짙은 스티븐은 제국주의의 횡포와 사회적인 병리현상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판자이면서도 폭력을 입에 올리거나 쓰는 법이 결코 없다. 다른 민족주의 운동가들과는 달리 총 대신 “차거운 첼렌”(U 1. 153)을 선택하는 그는 영국 병사가 그를 때려 눕히려해도 “개인적으로, 나는 행동을 혐오한다”(U 15. 44 14)라고 외칠 뿐이다. 여기서 “행동”이라 함은 몸으로 대항함을 뜻한다. 그는 맞고 쓰러져도 폭력으로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유대교도, 회교도, 이교도, 모두 하나되기”(U 15. 1686)를 바라는 블룸도 스티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폭력이나 과격성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분개한다.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변혁은 만기가 된 할부제처럼 정당하게 와야 한다”(U 16. 1099-1101). “나의 나라는 아일랜드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블룸에게 국수주의자인 ‘시만’이 그는 유대인의 후예라는 이유로 이 말을 바웃으며 술집바닥에 가래침을 뱉자(U 12. 14301-1435) 이 인종차별적인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 블룸은 완강한 어조로 항변한다. 여기서도 그는 “폭력과 증오...는 산남선녀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증오의 반대를 뜻한다”(U 12. 1481-1485)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인물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통하여 제시하려 한 미래 사회의 불멸의 비전은 반목과 폭력 없는 세계,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세계가 아닌가 한다.

(충북대)

인용 문헌

Primary Sources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The Viking Critical Library, 1979. (D로 줄여 씀).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The Viking Critical Library, 1977. (P로 줄여 씀).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Penguin Modern Classics, 1986. (U로 줄인 뒤 장수 와 행수를 적음)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2. (CW로 줄여 씀).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1. Ed. Stuart Gilbert. London: Faber, 1957. (L I로 줄여 씀).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1966. (L II로 줄여 씀).

Secondary Sources

- Blamires, Harry. *The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London: Routledge, 1989.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London: Oxford UP,

1972.

Deming, Robert H., ed. *James Joyce: The Critical Heritage*. 2 vo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 Revised Edition. New York: Oxford UP, 1982.

_____. *Ulysses on the Liffey*. New York: Oxford UP, 1972.

Gibson, Andrew. "'Strangers in my House, Bad Manners to Them': England in 'Circe'." *Reading Joyce's 'Circe': European Joyce Studies* 3. Ed. Andrew Gibson. Amsterdam: Rodopi, 1994. 179-221.

Gifford, Don, with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Herr, Cheryl. *Joyce's Anatomy of Culture*. Urbana: U of Illinois P, 1986.

Herr, Cheryl, and Chris Connell. "Political Context for *Ulysses*." *Approaches to Teaching Joyce's 'Ulysses'*. Ed. Kathleen McCormick and Erwin R. Steinberg. New York: MLAA, 1993. 31-41.

Kenner, Hugh. *Ulyss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Kiberd, Declan. "Notes" to James Joyce, *'Ulysses': Annotated Students' E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2. 941-1195.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Parrinder, Patrick.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1984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Potts, Willard, ed. *Portraits of the Artist in Exile: Recollections of James Joyce by Europeans*. Seattle: U of Washington P, 1979.

Spears, Richard A. *Slang and Euphemism: A Dictionary of oaths, curses, insults, sexual slang and metaphor, racial slurs, drug talk, homosexual lingo, and related matters*. Middle Village, New York: Jonathan David. 1981.

Watson, G. J. "The Politics of 'Ulysses'." *Joyce's 'Ulysses': The Larger*

Perspective. Eds. Robert D. Newman and Weldon Thornton. Newark; U of Delaware P, 1987, 39-58.

Williams, Trevor L. *Reading Joyce Politically*. Gainesville: U P of Florida, 1997.

Abstract

The Politics of Excremental Satire in James Joyce's *Ulysses*

Sheon-Joo Chin

One of the reasons Joyce uses extensive scatological language in his *Ulysses* is that he invented a narrative strategy for satire by converting the purgative function of excrement to an artistic end. This is evidenced in his claim for his satirical broadside "The Holy Office" (1904) that his duty as artist is "Katharsis-Purgative."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in *Ulysses*, Joyce satirizes by the excremental references, how he employs various excretory images, and finally, the politics of his scatological satire.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the fact that *Ulysses* is set in 1904 when Ireland was a colony of the British Empire. Joyce, a postcolonial writer, first contemptuously derides English colonial culture for the reason that "the brutish empire" is nothing but the produce of "cloacal obsession." And he also ridicules, with excremental language and actions, domestic problems such as the hypocrisy of the press and deplorable emotionalism of his fellow countrymen, neither of which is, in his estimation, free from the imperialists' remote manipulations.

As satire is, as characterized by Jonathan Swift, not malice but medicine, so does Joyce's satire appear to be reflective of his repressed desire that all the repressive factors caused from both without and within Ireland have to be purified as early as possible. In this regard, Joyce's excremental satire is an efficacious narrative strategy to promote, as he put it, "the spiritual liberation of my country."